

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



[말보다 깊은 언어, 침묵]

이름	황재웅
전공	전자공학부
학번	20201424
참여 프로그램	☐ 글말특강 (7회차)

<말보다 깊은 언어, 침묵>

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말을 주고받는다.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‘말’이 아니라 ‘말하지 않음’에 있다는 걸, 이번에 침묵이라는 주제를 접하며 새삼 느꼈다. 겉보기엔 그저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여도, 침묵은 그 자체로 깊은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자 삶을 성찰하게 해주는 창이었다.

문학에서 나오는 침묵은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 그 이상인 것 같다. 예를 들어 시 ‘발효’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억눌린 감정이 결국 안에서 천천히 변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, 그게 꼭 침묵이 억압을 견디며 품고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. 말은 없지만, 그 안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게 담겨 있는 것처럼.

생각해 보면 현실에서도 침묵은 여러 의미로 쓰인다. 유재석이 방송에서 했던 조언처럼, 말을 꼭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 수도권에서 침묵 수행을 하며 본인을 돌아봤다는 이야기도 인상 깊었다. 직업이 말하는 건데도 굳이 말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는 게 더 와닿았던 것 같다.

사실 나도 그런 조용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다.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오가던 시간. 답은 없었고, 그냥 조용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 같다.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좀 더 솔직하게 마주보게 했던 것 같다.

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‘건설적인 침묵’과 ‘파괴적인 침묵’의 구분이었다. 나는 그동안 침묵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 여겨왔는데, 감정 섞인 눈빛이나 짜증 섞인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고개가 끄덕여졌다. 결국 중요한 건 ‘왜 말하지 않는가’였고, ‘어떻게 듣고 있는가’였다.

말을 줄이면 오히려 더 많은 게 들린다는 말도 깊게 와닿았다. 늘 말로 채우려 했던 내 일상 속에서,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들은 내가 침묵할 때 흘러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. 말은 내보내는 힘이고, 침묵은 받아들이는 용기다. 말과 침묵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, 적어도 둘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이란 건 분명하다.

침묵은 고독과도 닮아 있다. 하지만 외로움과는 다르다. ‘고독력’이라는 표현이 참 멋졌다. 혼자 있는 시간,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조용한 공간, 그런 침묵의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. 요즘은 그런 고요한 힘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.

이번에 배운 침묵의 의미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남았다.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, 상대방의 눈빛과 분위기를 읽으며, 필요할 땐 기꺼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. 결국, 침묵은 나를 지키는 것이자,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.